

마사회의 농림부 환원 촉구 건의안

의안 번호	373
----------	-----

제안년월일 : 2000. 12. 20

제안자 : 산업경제위원장

1. 주 문

마사회의 수익금을 농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97년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마사회의 농림부 환원을 건의함.

2. 제안 이유

정부의 농정실패로 분노에 차 있는 농업인들이 농촌희생 대책을 요구하고 있는 이때에 상처받은 농심을 치유하고 사기를 높여 새천년 농업활성화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함

3. 참고 사항

“ 없 음 ”

마사회의 농림부 환원 촉구 건의문

존경하는 김대중 대통령(국회의장, 새천년민주당대표최고위원, 한나라당총재, 자유민주연합총재권한대행, 문화관광부장관, 농림부장관)님께

21세기 국제사회의 중심국가로 만들기 위하여 밤낮으로 걱정하시고 특히 우리농업과 농업인들에게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민족의 생명산업인 농업을 묵묵하게 지켜온 농업인들은 늘어가는 농가부채와 농축산물의 가격폭락 및 수입개방에 의한 수입농산물의 대량유통으로 조상 대대로 살아온 정든 고향을 등져야 하는 최악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충청북도민과 의회 의원 일동은 지난 12월 16일 정부와 정치권에 농촌을 희생시킬 수 있는 대책수립을 강력하게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마사회의 농림부 환원과 관련하여 마사회의 수익금을 농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함은 김대중 대통령의 대선 공약사항이자 김종필 자민련 명예총재와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가 '97년 대선 당시 국민에게 약속했던 사항으로 아직까지 실현되지 않고 있어 정부와 정치권에 대한 불신의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마사회법을 보면 제1조의 목적에 『한국마사회의 조직·운영과 경마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경마의 공정한 시행과 원활한 보급을 통하여 마사의 진흥과 축산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고 동법 제36조(사업의 범위) 제2호에 의하면 『말의 개량증식·육성 및 그 기술개발과 보급, 말의 보건 및 위생에 관한 연구, 축산업에 의한 축산발전기금의 출연』등으로 되어 있어 마사회 업무의 성격이 농림부 고유의 업무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농정실패로 실망스러움과 배신감으로 분노에 차있는 농업인들이 농촌회생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요구하고 있는 이 때에 상처받은 농심을 치유하고 사기를 높여 새천년 농업활성화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충청북도의회 의원일동은 150만 도민과 함께 마사회의 농림부 환원을 강력히 건의 드립니다.

2000년 12월 22일
충청북도의회의원일동